

### 京色紙短冊和本帖



平安時代開始被使用於歌集及詩集的懷紙、至鎌倉時代演變為現今所見的色紙及短冊。原為宮中大經師製作、但現今傳承了該技術的職人於京都製作生產大部分的色紙短冊和本帖。

平安時代 794-1185  
鎌倉時代 1185-1333

製作：京都市

### 京都の彩紙、长条纸笺和



以平安时代的歌集和诗集为发端的怀纸、到镰仓时代演变成了今日可见的彩纸和长条纸笺的形式。原本由宫内祿装师制作、现在几乎全部都是在传承了这种技术的京都生产。

平安时代 794-1185  
镰仓时代 1185-1333

制作：京都市

### 교(京) 색지 단책화본점



헤이안 시대의 가집이나 시집에서 유래된 가이시(접어서 품에 지니는 종이)가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 오늘날의 색지나 단책의 형태로 되었다. 원래 궁중의 다이코지(경문의 옮겨 적는 사람)가 만든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기술을 전승하여 교토에서 그 대부분이 생산된다.

헤이안 시대 794-1185  
가마쿠라 시대 1185-1333

교토시 제작

### Kyoto Shikishi, Tanzaku and Waboncho paper



In the Kamakura period, *kaishi* paper that had been used for poetry anthologies in the Heian period evolved into the *shikishi* and *tanzaku* paper that is still used today. Originally they were made by the *daikyoji* (master of scrolls and Buddhist drawings) within the imperial court, but in the present day they are mostly produced within Kyoto using the same techniques.

Heian period 794-1185  
Kamakura period 1185-1333

Produced by City of Kyoto